

지방 공항 11곳 만성적자 '허덕'

광주 11억·여수 79억·무안 71억 등... 적자 감소 대책 마련 절실

김해·김포·제주공항 등 3곳만 흑자

광주, 여수, 무안공항 등 대다수 국내 지방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비용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 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적자를 냈다.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작년 10월

이후 항공사의 정기노선이 끊긴 양양 공항으로 적자 규모가 101억4천만 원에 달했다. 비용은 105억1천800만 원에 비해 수익은 겨우 3억7천800만 원이었다. 이어 여수공항이 79억1천1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무안공항(71억3천만 원) ▲울산공항(60억9천500만 원) ▲포항공항(56억3천만 원) ▲청주공항(54억4천900만 원) ▲사천공항(34억7천만 원)도 적자폭이 컸다. 광주공항도 11억6천500만 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이들 적자 공항은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해공항(664억1천900만 원) ▲김포공항(528억8천100만 원) ▲제주공항(277억1천200만 원) 등 3곳뿐이었다.

전체 14개 공항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까지 모두 합하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957억3천300만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김해, 김포, 제주 등 3개 공항이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를 모두 메우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우량한 3개 공항이 부실한 나머지 공항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며 "만성 적자인 지방공항을 공익적 차원을 고려해 폐쇄할 수는 없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40억 원이 투입되는 체육관 건립을 구성해 수익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비용 절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011년까지 305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고흥군은 24일 '박치기왕' 고(故) 김일 선생의 고향인 금산면 어전리에서 '김일기념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고흥에 '박치기왕' 김일 체육관 짓는다

금산면 어전리 어제 기공식... 40억 들어 전시간 등 조성

'박치기왕' 김일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체육관이 건립된다.

고흥군은 24일 고(故) 김일 선생의 고향인 금산면 어전리에서 김일기념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 등 40억 원이 투입되는 체육관은 1만3천여㎡ 부지에 총 면적 2천200여㎡로 전시간 기능을 함께 갖춘 체육관과 야외공원 등이 조성된다.

체육관 안에 들어서는 기념관에는 김일이 생전 시합 때 입었던 옷과 챔피언 벨트, 우승컵, 경기사진

들이 전시되고 생전의 경기 모습 등을 보여줄 영상관도 마련된다.

체육관 인근에는 면민들이 뜻을 모은 공덕비와 김일이 가장 아끼던 동물로 잘 알려진 진돗개 동상도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체육관이 건립되면 금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2011년 준공될 연도교 등과 함께 금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반도 최남단 지역으로 따뜻한 기후, 맛갈스러운 음식 등이 함께 어우러져 동계 전지훈련장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군 관계자는 "체육관 건립을 계기로 전지훈련장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 연도교와 연계한 해안리조트 자전거도로 개설 등 관광과 스포츠를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산 문하생으로 입문, 호쾌한 박치기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 등에 오르는 등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우리나라 프로레슬러 1세대다. 그는 2006년 10월 향년 77세로 타계했다.

/동부취재본부=주경기자 gjji@

보금자리 주택 20% 우선 공급

28일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

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세 납부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천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4인 이상 342만1천원, 5인 이상 350만1천원, 6인 이상 415만원) 이하

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서 미달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만큼 일시에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다음달 초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단지 사전예약분에 한해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수입하다가 씁시다

추석 교통 혼잡 예상 시간대는?

귀성 2일 오전·귀경 3일 오후

올해 추석 귀성길은 2일 오전이 가장 혼잡하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3일 오후가 가장 복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동인구는 작년 추석 때보다 0.8% 줄어든다고, 귀성시 서울~부산은 평소보다 3시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예상 교통량에 따른 연휴기간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전국의 이동인구는 총 2천566만명으로 작년 추석 때보다 0.8% 감소하지만, 연휴기간이 예년보다 짧아 귀성 및 귀경길이 모두 혼잡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시간대별로는 2일 오전 6시~낮 12시 전체 귀성 차량의 35.5%가 집중되고, 3일 낮 12시~18시 귀경 차량의 22.9%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 이용시 귀성일에는 서울~광주 7시간이 걸리고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5시간20분, 부산~서울 8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주유소 200여곳 가격담합 조사

공정위 이번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주유소의 가격담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고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4일 "이번 주부터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조사는 분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랫만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주간기준)은 작년 말 1당 1천290.02원에서 이달 들어 1천684.10~1천695.80원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생활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LPG 업체와 대형 종합병원, 소기업, 음원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영화관, 우유업체, 제빵업체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6개 LPG 공급업체는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학교 주변 간식 너무 짜고 달다

치킨강점과 햄버거, 호떡 등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간식의 나트륨, 당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학교 주변 간식 24개 품목(420건)에 대한 나트륨·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나트륨 함량은 닭강정과 햄버거, 당 함량은 호떡과 와플에서 가장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의 간식 100g당 평균 373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本社 人事

▲鄭康均: 동부취재본부 광고담당

광주 11억·여수 79억·무안 71억 등... 적자 감소 대책 마련 절실

김해·김포·제주공항 등 3곳만 흑자

광주, 여수, 무안공항 등 대다수 국내 지방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비용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 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적자를 냈다.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작년 10월 이후 항공사의 정기노선이 끊긴 양양 공항으로 적자 규모가 101억4천만 원에 달했다. 비용은 105억1천800만 원에 비해 수익은 겨우 3억7천800만 원이었다. 이어 여수공항이 79억1천1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무안공항(71억3천만 원) ▲울산공항(60억9천500만 원) ▲포항공항(56억3천만 원) ▲청주공항(54억4천900만 원) ▲사천공항(34억7천만 원)도 적자폭이 컸다. 광주공항도 11억6천500만 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이들 적자 공항은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해공항(664억1천900만 원) ▲김포공항(528억8천100만 원) ▲제주공항(277억1천200만 원) 등 3곳뿐이었다.

전체 14개 공항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까지 모두 합하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957억3천300만 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김해, 김포, 제주 등 3개 공항이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를 모두 메우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우량한 3개 공항이 부실한 나머지 공항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며 "만성 적자인 지방공항을 공익적 차원을 고려해 폐쇄할 수는 없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40억 원이 투입되는 체육관 건립을 구성해 수익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으며, 비용 절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011년까지 305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광 조 순(180710-2642719)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3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 9월 24일 공고
 고 인: 최정주, 최갑주, 최준, 최현영, 최소연, 최정훈, 정계, 안채란, 안효진, 안효정, 안효서, 정상은, 정수기, 정상호

한정승인수리일: 2009. 9. 22.
 공고기간: 2009. 9. 26 ~ 2009. 11. 24. (2개월)
 연락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호반APT 102동 905호
 정상은 (010-4852-3779)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 062-233-2222 H-P: 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 지역: 전남·북, 기타지역
- 용량: 100KW이상~ 무제한
- 조건: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역)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 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역 전국
규모 200KW이상
기한 2009. 10. 20

자급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땅**

상담문의 010-7219-7123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특 지

- ▶담양 창평 컨센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 ▶남평읍(중흥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 ▶광산구 요기동 3,000㎡ 매 1억3천
-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 ▶무안군 일토읍(계획관리지역) 2,437㎡
-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8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 ▶용봉동(2층) 매 1억9천(보 5천/월 80)
-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 ▶고시달(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당

-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 편선 부지취적
- ▶(담양,정성 성업중인) 매 690㎡ (매 1억5천) 매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흥부지, 담양군근린주택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해남군수

1. 명칭: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 관련 두륜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기반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 관련 두륜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해 남 군 수

1. 명칭: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관련 두륜산 도립공원계획(변경)
 2.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현산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일원
 나. 주요 변경 내용: 세부토지이용계획은 공람 도시 참조

원산지: 자연환경지구 94,420㎡(20,080㎡), 전산지 1,370,000㎡(중 0.08%) 산호2의 면적(조성)
 면적: 289,500㎡, 변경 347,956㎡,
 면적: 78,456㎡

3. 사업시행자: 해남군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 관련 두륜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기반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 관련 두륜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해 남 군 수

1. 명칭: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관련 두륜산 도립공원계획(변경)
 2.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현산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일원
 나. 주요 변경 내용: 세부토지이용계획은 공람 도시 참조

원산지: 자연환경지구 94,420㎡(20,080㎡), 전산지 1,370,000㎡(중 0.08%) 산호2의 면적(조성)
 면적: 289,500㎡, 변경 347,956㎡,
 면적: 78,456㎡

3. 사업시행자: 해남군